

### 333 기도 약속(렘 강해 설교 29)

성경말씀: 렘33:1-8, 19-22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 의심이 생김,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지옥 불로 영원히 정죄하신다. 영원히 공허를 베푸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들을 확고히 이 땅에 심는다’, ‘과거에 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을 데려다놓으셨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 33장 개요

바빌론 군대들의 침략, ‘공성되’라는 기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백성과 왕의 집을 헐어서 성벽에 가져다 부음(4절). 이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때에 감옥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함.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3) 한국교회 특히 기도원에서 애용하는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여 3장, 밤샘 기도, 크고 신비한 일을 찾으려고 애를 씀, No!!!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부르라.” ‘cry가 아니라 call이다.’ any call 전화해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들, 강력한 일들을 뜻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렴.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마.” <333 기도 약속>

#### 어떤 하나님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 이름이 여호와인 자가 말한다(2절).

여기의 ‘그것’은 앞뒤 문맥상 예루살렘 도시를 뜻한다. 지금 바빌론 군대가 공성되로 무너뜨리려 하는 이 도시 예루살렘은 내가 만들었다. 비록 너희가 갖은 수를 동원해도 이 도시는 망한다(5). 그런데 내가 다시 복원한다(6, 10-11, 16).

나는 여호와다. 출3:14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1초 전 나와 1초 후 나는 변한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희 계획은 변해도 나는 불변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거처로 삼고 거기에 나의 전을 두었으므로 그것이 잠시 멸망해서 폐허가 된다 해도 내가 거기에 내 눈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복원한다.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봉인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이게 “나는 주니라.”의 뜻이다. 죄악으로 인해, 잘못된 이단 정보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이 피폐한 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한번 주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자녀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 나를 부르라

누가 부를 수 있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 부를 수 있다. 아이가 전화하듯 불러라.

갈4:3-6,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벧전1:14-17,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하게 되어 있다.

이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급하게 소리 내어 부르는 것(다윗의 도피 상황), 영혼이 지쳐서 끄끙대며 신음하는 것(다니엘의 21일 기도), 옥에 갇힌 채 울면서(예레미야), 서서, 누워서, 설거지하며, 운전하며, 책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간절함이 표현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롬8:26).

####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들이 부를 때에 아버지가 문제를 듣고 풀어주듯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응답의 비결: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7).

마6장의 모범기도(9-14),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일용할 빵, 죄 고백, 시험 면제  
간구, 왕국과 권능과 영광,

염려하지 말라(25-27, 31-33), 곧바로 6장 7-11, 구하라 주실 것이다.

1. 우리의 확신(요일5:14)
2.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빌4:6-7)
3. 은혜의 왕좌(히4:15-16)

누가 기도하는가?

1. 구원받지 못한 분: 행16:30-31
2.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분: 이단 교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영
3. 병으로 앓는 분: 요일5:14
4. 재정 문제로 고생하는 분: 주여,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빌4:12-13
5. 결혼 문제로 고생하는 분: 내 잘못을 보고 용의 인내를 볼 수 있도록
6. 열정이 식어서 고생하는 분: 주여,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보여 주십시오.
7. 목사로서는 곳곳에서 교회를 바라는 심령들이 있다. 주님께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다.

환상과 계시를 찾는 것은 불신의 행위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셨다.

‘나만 아는 계시’는 이단 계시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다.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바빌론 군사들의 공성되 소리,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

과연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가? 사람의 눈으로는 없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 주심.

1. 날들이 이르리니(14),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가도 그들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7). 그리고 특히 재림의 때에는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라(8), 그들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하겠다(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2. 황폐한 이 도시에(10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예배가 있다(11). 이런 일들이 바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다.
3. 스가랴 8장 1-8절, 22-23, 예루살렘의 복
4. 다윗의 왕좌가 영원무궁하겠다(15). 다윗의 부활, 판단의 공의와 의 집행, 그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17). 삼하7:12-16의 완성
5.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이름은 주 우리의 의(義), 義 설명,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것, 의(롬 1:16-17).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에스겔의 환상: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옴(겔 47:8-12), 소금 계곡과 소금 바다가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됨. 만복의 근원이 됨
6.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한 민족이 된다(24).

하늘과 땅의 규례들, 낮과 밤의 규례들을 두고 맹세한다(20-26).

낮을 보라(태양). 밤을 보라(달), 변하지 않고 무궁히 계속된다. 이 일들이 멈춘다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으므로 너희에 대한 언약은 불변이다.

아브라함의 복(창15),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22).

지난 4000년간 유대인들이 헤매고 다녔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 1948년에 돌아왔다.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시122:6).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 이 땅이 정화된 뒤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 신약성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계21-22).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던 곳,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No!!(계21:3-4, 22-23; 22:3-5)